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포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말씀과 기도의 작전

'95 홍해작전, 오는 6일에 개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 위한 '95 홍해작전이 6월 6일(화)에 개전한다.

홍해작전은 애굽 군대에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걸어서 홍해를 건넜던 역사적 사건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현재의 갖가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의 프로그램이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이지만 홍해작전 기간 동안에는 좀더 힘써서 집중적인 훈련을 함으로써 신앙의 진보를 꾀하는 것이다.

이번 홍해 작전의 주제는 “영적 각성과 창조질서의 회복”으로서 개인과 가정, 사회와 자연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한다. 해마다 6. 25 기념일이 포함된 6월, 특별히 현충일인 6일에 개전하는 홍해작전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의 폭을 넓히는 기간이기도 하다.

'95 홍해작전 본부에서는 말씀과 기도의 두 수레바퀴가 조화와 균형 가운데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되, 성도 개인이 독자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영적인 성숙을 도모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지침으로 삼았다.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들도 실제적인 것으로 축약하여 밀도있게 진행함으로써 일상의 삶에 무리없이,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승전감사예배를 드리는 25일까지 20일간의 특별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에 시작하여 기도의 제물들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한다. 일년 내내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 때만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새벽기도의 유익을 맛보아 앞으로 평생 새벽기도회를 결단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주력교구와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되 이웃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자가용 함께 타기 등, 사랑으로 교제하는 기간으로 삼는다.

작전 본부에서는 말씀을 읽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날짜별로 본문을 정하였는데 제시된 분량만큼 매일 성경을 읽으면 홍해작전 기간동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기록된 창세기와 홍해사건이 기록된 출애굽기, 성령의 사역을 알 수 있는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독할 수 있다.

이번 홍해작전 기간을 말씀에 착념하며 깊이있게 기도하는 생활에 있어서 진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해를 거듭할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하며 성숙하여져서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천국시민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다.

'95 홍해작전 기간동안 기도할 것 일곱가지

1. “주여, 내니이까”

죄를 범하고도 가증스럽게 죄를 감추었던 가롯 유다. 이 시대의 가롯 유다가 자기 자신임을 자복하고 숨겨진 죄까지 철저히 통회하자.

2. “깨어진 이 땅을 고치소서”

남북 분단 5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화해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고쳐주리라”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7천만 우리 민족에게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주심사고 애소하자.

3. “내 집은 황무하였거늘 너희 집은 편벽한 데 있구나”

우선권을 바로 선정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이며 더 영광스러운 것인지 분별치 못하는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하사 하나님께 예배하며 세계복음화의 산실이 될 서울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자.

4. “가서 너도 이같이 행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의 참 친구가 되기 위해 정직, 절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5.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가정, 교회, 일터에서 화평의 사도가 되도록 기도하자.

6.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대투명을 따라 복음에 대한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자.

7.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편전에서 인간, 사회, 자연이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교회, 민족이 되도록 탄원하자.

'95 홍해작전 기간동안 읽을 말씀과 주력교구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6 창 1-7장 * 팔호 인은 주력교구 95 홍해작전 개전	7 창 8-14장 (1, 2교구)	8 창 15-21장 (3, 4교구)	9 창 22-28장 (5, 6교구)	10 창 29-35장 (7, 8, 9교구)
11 창 36-42장 (10, 11, 12교구)	12 창 43-50장 (1, 2교구)	13 출 1-7장 (3, 4교구)	14 출 8-14장 (5, 6교구)	15 출 15-22장 (7, 8, 9교구)	16 출 23-31장 (10, 11, 12교구)	17 출 32-40장 (1, 2교구)
18 눅 1-6장 (3, 4교구)	19 눅 7-12장 (5, 6교구)	20 눅 13-18장 (7, 8, 9교구)	21 눅 19-24장 (10, 11, 12교구)	22 행 1-7장 (1, 2교구)	23 행 8-14장 (3-6교구)	24 행 15-21장 (7-12교구)
25 행 22-28장 승전감사예배	* 홍해작전 개전일인 6일과 마지막 날인 25일은 총동원의 날 * 승전감사예배는 25일(주일) 찬양예배 시					

창세기 강해



믿음의 순종

(22장 15 ~ 24절)

이 중 윤 목사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때때로 어떤 징조를 보면서 앞으로 될 일을 예견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는 전혀 예견 못한 하나님의 명령에 놀랐을 것이고, 하나님께 바치면 죽을줄만 알았던 이삭이 다시 살게 된 것 역시 그에게는 상상 외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의 부활을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히 11:19) 창세기에서는 이삭이 다시 살 것을 예견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순종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18절). ‘준행했다’는 것은 곧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으로 성경에 이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는 아브라함의 큰 믿음의 척도는 그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기를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날로 시행을 했습니다(창17:23). 또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어 쫓으라고 하셨을 때에도 그러했으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행해야 합니다(시 119:6).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응답하며 믿는 마음으로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2. 지속적인 순종

작심삼일(作心三日),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특심한 열심을 가졌다가도 점차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열심이 식어지는 것을 우리가 흔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3일이 걸립니다. 비록 믿음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출발하였더라도,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할 일을 꼼꼼히 생각하면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그 마음이 바뀌어 돌아설 수도 있건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구원의 여러 단계 중 ‘성도의 견인(堅忍)’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구력 있는 순종, 지속적 순종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3. 자원하는 순종

순종은 억지로 하는 굴종과는 다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의 신앙은 쑥쑥 자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맞보아 안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형식만 있는 제사보다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순종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삼상 15:22).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골2:7). 주님의 순종을 우리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4. 안정된 심령으로 하는 순종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을 창대케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독자를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는 큰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혼란된 이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도 빠르게 변화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은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조용하게 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 전수해야 할 순종의 삶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은 그 아들 이삭에

게 전수됩니다. 성장한 이삭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묶어서 제단에 올리는 것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갈때에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에서 연유한 것이며, 그의 믿음의 척도는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친구라 부르시고, 예전에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키시며 이전보다 더 큰 약속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족과 이웃을 재회하게 되는 육신적인 복까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례자 컬럼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불씨”

세계복음화를 위한 영적 각성운동의 거룩한 불길이 우리의 심장에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눈을 들어 세계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한국 교회로 하여금 위대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선교의 뜨거운 열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불씨가 되자. 기도는 세계복음화의 최우선 전략이니 생명이 있는자 마다 기도할 것이요 능력이 필요한 자마다 기도할 것이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뜨거운 심장을 물처럼 쏟아 부으며, 깊은 골방 조용한 창가에서 우리의 두 무릎이 낙타의 무릎같이 굳어질 때까지 기도를 사랑하자. 기도로 기어가지.

오대양 육대주를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북한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이슬람권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날마다 지구를 부둥켜 안고 사랑과 눈물의 기도로 아픔을 씻어주자.



모슬렘권에도 성령의 불길이 나오르게 하소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형제들과 함께

이탄 킷치신학세미나에 오신 분들의 필요를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자히르 우딘



1. 성 안드레 교회 목사, 파키스탄 CCC 회장
2. 1939. 7. 14일 생
3. 부인과 2남 2녀
4.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의해 1868년에 설립됨. 영국 식민지 시에는 주둔군 교회로 사용됨. 한 때 폐교되기도 했으나 1968년 파키스탄어권을 위한 교회로 재

건됨.

5. 파키스탄어(우르드어)로 드리는 예배에 200가정, 영어예배에 40가정이 참여함. 보수적이고 이기적임.
6. ① 교회의 갱신
② 청년층의 확보와 제자화
7. ① 철야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② '기도와 금식' 모임 조직

▶ 아슬람 다니엘

1. 벨엘기념교회 목사
2. 1954년 12월 25일 생
3. 부인과 4남 1녀
4. 1901년에 감리교회에 의해 설립됨. 현재 교회연합을 위하여 파키스탄 교회(Church of Pakistan)에 소속됨.

5. 영적으로 빈곤함.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많음.
6. 치유와 갱신의 사역
7. 교회의 부흥과 파키스탄의 재건

▶ 쓰디 티피 버흐피



1. 성삼위일체교회 목사
2. 1937. 4. 3일 생
4. 1977년에 설립됨.
5. 200여 가정이 믿으의 성장을 준비 중에 있음.
6. 파키스탄 고유의 교회 설립
7. 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파키스탄

② 자립하는 교회

③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교회

④ 부인의 지병 완쾌

▶ 조지 알라 라카

1. 필라델피아 오순절 교회 목사
2. 1936. 12. 11일 생
3. 부인과 신학공부 중인 아들.
4. 1960년에 설립된 후 현재 12명의 목사와 전도사,



▶ 이름

1. 소속교회 및 직분
2. 생년월일
3. 가족
4. 교회연혁
5. 교회의 상황
6. 목회비전
7. 기도제목

75명의 장로와 집사가 시무하고 있으며 여러 곳에 교회도 개척하였음. 성서연구소도 운영중임. 학교와 봉제센터, 성인 문학소, 고아원 등의 사회사업도 전개 중임.

5. 지교회들 중에는 왕성하게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폐쇄되는 경우도 있음. 목회자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형편이지만 기도모임들이 조직되어 교회 부흥의 기반이 되고 있음.
6. 현재까지 4500명 이상이 세례받고 55명의 목회자가 함께 사역하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7. ① 파키스탄 전역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② '더 많은 동역자와 재정후원자를 보내주시기를
③ 현재 파키스탄에서 활동중인 목회자, 선교사들이 능력있게 쓰임받도록

▶ 느심 자하르

1. 파키스탄 여전도회 회장, 기도분과 위원장
2. 1947년 3월 1일 생



▶ 다나쉬맨드

1. PCCC(파키스탄 대학생선교회 훈련원) 원장
2. 1958년 3월 15일 생
3. 부인과 8개월 된 아들

4. 1960년에 창립된 PCCC는 청년과 평신도 사역을 위한 모임으로 대학생전도에 주력하고 있으며 1992년에 훈련센터를 세우고 파키스탄 내의 주요도시에 CCC 조직을 확산하고 있음.

5. 60명의 스태프가 활동 중에 있고 오는 2000년 파키스탄의 세기 복음화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음.
6. 파키스탄 복음화를 위한 수백명의 전도요원을 훈련시키고자 함.

7. ① 대학생선교의 결실
② 1995년 9월에 시작하는 훈련에 20명의 새로운 요원을 허락하시길.
③ 정규적인 재정후원자가 확보되도록
④ 가족의 건강

▶ 샴말리코

1. 부활의 교회 파키스탄 교회 감독부인, 전도훈련원 원장
2. 1951년 10월 18일 생
3. 1남 3녀
4. 파키스탄 연합에 소속된 교회
7. 교회에 지속적인 성장이 있기를





모슬렘권에도 성령의 불꽃이 나오르게 하소서!

▶ 슈니라 콧



1. 파키스탄 교회 연합 여성분과 위원장
2. 1953년 6월 30일 생
3. 1남 1녀
4. 1971년 성공회, 감리교, 스코틀랜드 장로회 및 루터 교회의 연합체로 설립, 현재 8주교로 운영.
5. 교회 내, 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환란에 직면해 있음.

6. ① 기도회의 조직
- ② 파키스탄 전 가정의 복음화
7. ① 파키스탄 교계 지도자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갖도록
- ② 평신도와 여성지도자들이 믿음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도록
- ③ 여성들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 스마트 K. 다스

1. 파키스탄 교회 대회 총무
2. 1938년 12월 20일 생
4. 4개교단 연합체로 1970년에 설립됨.
6. 파키스탄 국민의 부흥과 재기의 비전이 삶 속에 반영되도록
7. 섬기고 있는 학교와 교회의 영적 부흥



▶ 임마누엘 이그발



1. 구세군 총서기
2. 1938년 12월 5일 생
4. 1883년에 설립됨.
5. 밴드 팀, 청년회, 찬양대, 주일학교 등이 조직되어 있음.
6. 회교국에서 굳건한 크리스찬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육성하고 도우는 일.

7. ① 파키스탄의 영적인 부흥
- ② 비기독교인에게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 ③ 기독교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 하눅 하깨

1. 성 안드레 장로교회 목사, 성서공회 편집장
2. 1949년 2월 7일 생
3. 부인과 1남 2녀
4. 연합장로교회로 출발하였으나 안드레 장로교회와 연합한 후 장로교회로 분리됨.
5. 저조한 출석율에 성장이 거의 없으나 일부 헌신하는 신자들로 인해 희망이 있음.
6. ① 영적인 만족이 있는 교회
- ② 전도하는 교회
- ③ 축복을 나누는 교회
7. ① 50명 단위의 영적인 기도모임을 조직하는 일
- ② 목사관이 연말까지 잘 건축되도록
- ③ 장로들이 주님께 충성하는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 이름

1. 소속교회 및 직분
2. 생년월일
3. 가족
4. 교회연혁
5. 교회의 상황
6. 목회비전
7. 기도제목

▶ 이슬람 지야이



1. 파키스탄 장로교회 당회장, 교수
2. 1948년 8월 4일 생
6. 미래에 대한 헌신적인 지도력을 갖추는 일
7. ① 가르치고 있는 신학세미나에 속한 연구원과 학생들을 위해
- ② 리더쉽과 가르침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도록
- ③ 더 깊은 헌신을 위한 학생들의 제자화 운동을 위하여

▶ 마그볼 길



1. 갈보리 교회 목사, 형제교회 총무
2. 1937년 11월 5일 생
4. 1950년에 시작하여 현재 100가정이 참석중임. 목사 2명, 장로 6명 시무.
5.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주일학교, 청년그룹, 여학생과 부인들의 그룹 활동이 활발함.
6. 새로운 비전과 부흥으로 지역교회와 전 연합회가 성

장하도록

7. ① 새로운 도전과 주님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 ② 말씀 선포와 성경공부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진보가 있도록

▶ 사무엘 하비브 아시



1. 파키스탄 장로교회 목사
2. 1938년 11월 19일 생
3. 부인과 4남 4녀
4. 1962년에 목사안수를 받은 후 1993년에 현재의 교회를 설립.
5. 국민학교, 직업훈련원, 주일학교, 성인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도 공개하여 사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6. 주님의 복음을 파키스탄 국민들에게 증거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공동체의 회원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
7. ① 본인의 건강(한쪽 다리가 불편함)
- ② 교육기관의 본관 건축
- ③ 외로운 길을 견고 있는 파키스탄의 목회자들을 위해

▶ 조세프 디완



1. 성 앤드류교회 목사
2. 1951년 12월 17일 생
3. 부인과 두 자녀
4.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짐.
5. 교회의 역사가 긴 만큼 교인들이 보수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여 성장이 둔함.
6. 진정으로 거듭나서 살아생동하는 교회

7. ① 가족의 건강
- ② 성도들의 갱신
- ③ 예배당을 멋지게 개축하는 일



모슬렘권에도 성경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 제랄드 말



1. 성 토마스 신학교 교수
2. 1941년 11월 8일 생
3. 부인과 2남 13녀
6. 이슬람과 파키스탄을 위해 불붙는 심정으로 신실하게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
7. ① 열악한 상황에 있는 파키스탄의 교회

를 위해

- ② 성 토마스 신학교의 현재와 장래를 위하여
- ③ 더 많은 교수가 확보될 수 있기를
- ④ 파키스탄의 복음화를 위하여

▶ 유니스 말 딘

1. 뉴 벤델교회 장로, 기독교병원 원장
2. 1945년 4월 9일 생
3. 부인과 1남 3녀

4. 1954년에 선교사들과 파키스탄인들이 협력하여 만든 교회. 1990년 교회가 두개로 분열되었으나 지금은 그 관계가 상당히 호전되어가고 있음.

5. 두 명의 장로, 다섯 명의 집사가 봉직하고 있음. 75명이 출석하며 그들은 세 개의 분야로 나뉘어 프로그램을 진행함. 교도소 전도와 청년회 및 아동들의 활동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6. ①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고 정착시키는 일
- ② 청년들의 육성으로 파키스탄 교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일
- ③ 파키스탄 국민의 육적, 영적, 사회적 육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관심
7. ① 개인과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성장해 가는 일
- ② 교회당의 성공적인 건축
- ③ 올해 6월에 개최하는 청년수련회를 위하여
- ④ 올해 6월에 갖는 사역전담자와 장로들을 위한 모임을 위하여

▶ 김병교



1. 사다 에 파키스탄 교회 목사(선교사)
2. 1952년 5월 6일 생
3. 부인과 1남 1녀
4. 1991년 7월에 설립하여 예배공동체,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 되기 위해 힘쓴 결과, 매주일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였음.
5. 문맹자가 많고 교회 중심의 생활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에 모이는 정도의 상태에 있지만 교육, 봉사, 선교하는 교회로 발돋움하려고 한다.

6. ① 현지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교회
- ② 많은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
7. 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 ② III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 ③ 구과 선교회를 조직하는 일

▶ 이름

1. 소속교회 및 직분
2. 생년월일
3. 가족
4. 교회연혁
5. 교회의 상황
6. 목회비전
7. 기도제목

▶ 수브로토 바로이



1. 에덴장로교회 목사, 서울교회 선교사
2. 1956년 1월 1일 생
3. 부인
4. 1984년에 시작. 교회신축을 위한 대지 구입을 완료했으나 재원 부족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음.
5.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집이 너무 좁아 다른 장소를 모색중임.

6. 방글라데시 복음화와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
7. 교회당 건축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 앤드류 비말 할더르



1. 필라델피아 자유교회 목사
2. 1956년 1월 1일 생
3. 부인과 1남 1녀
4. 작년에 시작한 교회로 25명의 신자가 등록하였음. 예배에는 50 ~ 50명이 참석. 순조로운 성장을 보이고 있음.

5. 초신자가 많고 교회 건물이나 대지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 지역 지도자들의 박해가 심함. 경제적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근로자가 대부분이나 교회는 성장하고 있음
6. 개척교회를 설립하는 일과 본 교회의 빠른 성장
7. ① 교회의 영적 부흥으로 기도와 전도의 생활이 정착되도록
- ② 교인들이 경제적, 교육적, 육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 ③ 나의 부모와 형제들이 아직도 비기독교인임.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 ④ 초신자들이 힌두교인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도록

▶ 제임스 T. 할더



1. 칼란푸트 교회 목사, 선교사 훈련원장
2. 1951년 1월 1일 생
3. 부인과 1남
4. 방글라데시 침례교 선교사 팀이 신도시지역에 사무실을 지을 때부터 기도하여 칼란푸트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음.
5. 고속도로 옆 교회 건물로 옮겨 더 큰 교회를 짓고자 함.
6. 방글라데시의 모델교회로 메트로 다카 지역의 선교센터가 되기 원함.
7. ① 교회신축을 위한 정부허가와 재정적 지원
- ② 교회 지도자와 전도사역자들을 잘 양육하고 이끌 수 있도록

▶ 마리아 다스



1. 팔고다 침례교회 목사
2. 1949년 1월 21일 생
3. 부인과 4남 3녀
4. 37명의 환경미화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시작.
5. 현재 95가정, 300여 명의 대형교회로 성장함. 교회당이 있으나 너무 협소하여 교회 증축 예정 중에 있고, 교회 개척도 하고 있음.
6. 핵심 그룹을 조직하여 2000년까지 20000명의 교인



모슬렘권에도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과 2000명의 새신자, 200명의 핵심조직을 확보하는 것.

7. ① 기도혁명

- ② 악습과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 ③ 전도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 ④ 교회의 연합

▶ **마리아 다스**



- 1. 골고다 침례교회 목사
- 2. 1949년 1월 21일 생
- 4. 1974년에 설립하였고 인근에 13개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
- 5. 조그만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25명의 어린이가 침식을 함. 교회가 빈민가에 있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음.

7. 4층정도의 예배당을 완성하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함.

▶ **살릴 보스**

- 1. 사하라 침례교회 목사
- 2. 1954년 8월 30일 생
- 3. 부인과 1남 1녀
- 4. 1990년 다섯 가정으로부터 시작. 현재 가정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음.
- 5. 3년 전 BBF(방글라데시 침례교우회)로부터 장기저리용자를 받아 대지 구입. 2년 전 간이 건축을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36명이 모여 교회당 건축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있음.
- 6. 말씀과 신학교육을 통해 성경지식을 쌓아가는 일, 자립하는 방글라데시 교회.
- 7. ① 교회를 이끌어 갈 지혜로운 지도력을 위해
- ② 교회사역만 전담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자를 구하는 일
- ③ 연말까지 교회당 건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 ④ 보조사역자를 보내주시길



▶ **사무엘 알람**

- 1. 성경번역가
- 2. 1962년 6월 1일 생
- 3. 부인과 1남 1녀
- 4. 침례교 선교팀에 의해 1965년에 치타콩 시에 설립됨. 현재 150명의 신자를 갖고 있으며 전도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5. 지난 주에 목회자와 집사 사이에 의견차이로 교회 가분열됨.



6. 타지역 특히 회교지역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 7. ①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분열된 교회의 원상복귀를 위하여
- ② 모슬렘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 ③ 좋은 지도자들을 보내주시기를

▶ **므리툰조이 몰리코**

- 1. 침례교회 목사, TEE 교사



▶ **이름**

- 1. 소속교회및 직분
- 2. 생년월일
- 3. 가족
- 4. 교회연혁
- 5. 교회의 상황
- 6. 목회비전
- 7. 기도제목

2. 1956년 12월 20일 생

3. 부인과 1남 1녀

4. 초신자들에 의해 세워져 현재 125명의 교인이 참석하고 있으며, 12개 교회를 개척하였음.

5. 비기독교인에 대한 전도가 주사역인 본교회에 많은 전도사역자들이 자원하고 있으나 훈련받을 여건과 경제적 자원이 심히 부족함.

- 6. ① 힌두교와 회교도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
- ② 교회지도자와 선교사 양성

- 7. ① 교회개척과 힌두교, 회교도들을 향한 효과적인 복음전파
- ② 가족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기를
- ③ 더 많은 일꾼과 재정지원자 확보

▶ **스와폰 보스**

- 1. 시온 자유침례교회 목사, 자유침례교회 의장
- 2. 1951년 5월 19일 생



3. 부인과 1남 1녀

4. 1978년 9월, 10명의 교인이 우리 집에 모여 교회를 창립함.

5. 현재 100명의 교인과 교회당 건물을 가지고 있음. 영적인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재정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

- 6. ① 영적,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교회
- ②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 ③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 7. ① 우리 가정의 생계가 위협당하지 않도록
- ② 교회의 지도력이 굳건히 서도록
- ③ 대외적인 전도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 ④ 영적,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교회가 되도록

▶ **수드호르 할더**

- 1. 바다(BADA) 침례교회 목사, 기독교재자센터 교장
- 2. 1951년 11월 1일 생
- 3. 부인과 1남 1녀
- 4. 1980년에 설립되어 비교적 순조로운 성장이 계속되고 있음.
- 5. 대 내외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6. 교회 성장을 위한 더 큰 헌신
- 7. C. D. C. (Christian Discipleship Center)를 위한 기도



▶ **정재화**

- 1. 다카 샬롬교회 담임. 다카 연합신학교 교장(18년간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역 중)

3. 부인과 1남 1녀

4. 다카연합신학교는 1987년 5월 13일에 개교하였고 방학없이 연 3학기, 3년제의 학제로 진행됨. 전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함.

7. ① 신학생들이 진실하고 성령충만한 목회자로 훈련되도록





모슬렘권에도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 ② 졸업생들이 목회현장마다 진정한 의미의 목회자가 되도록
- ③ 방글라데시 교회들이 담임 목회자를 모실 수 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 ④ 방글라데시의 교회들이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 아더 제임스

- 1. 파키스탄 장로회 신학교 학장
- 2. 1949년 4월 5일 생
- 4. 1895년 북미 연합장로교회에 의해 설립됨. 1961년 파키스탄 연합자치선언 후 1993년 장로교 연합측과 통합함.
- 5. 전도, 교육, 구제 및 사회적 관심 분야에 걸맞는 조직 개편. 목회자의 영적인 각성이 요구됨.



- 6. 일관된 프로그램을 통한 목회자의 갱신. 교회 성장과 개척, 지역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재고하는 일.
- 7. ① 파키스탄 교회의 갱신과 부흥
- ② 회교의 탄압을 기도로 극복하는 교회되길
- ③ 학생들과 교수진들이 주 안에서 변화할 수 있도록

▶ 이름

- 1. 소속교회및 직분
- 2. 생년월일
- 3. 가족
- 4. 교회연혁
- 5. 교회의 상황
- 6. 목회비전
- 7. 기도제목

▶ 리아고트 궤세르

- 1. FGA 성경학교 교장
- 2. 1950년 9월 10일 생
- 3. 부인과 1남 2녀
- 4. 2년의교과과정으로 목회자와 전도자를 배출하는 아역을 감당하는 본교는 1968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 현재 1140여 교회 개척에 기여함.



- 5. 다섯 명의 여성도를 포함하여 26명의 학생을 가진 성경학교는 대부분 스웨덴 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졸업생들은 교회 자립에 헌신하고 있음.
- 6. 철저한 개인상담으로 목회자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일과 교회당을 건축하는 일
- 7. ① 작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양성되도록 은혜주시길
- ②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 ③ 능력있는 교수들을 보내주시기를
- ④ 파키스탄어로 된 신학교재를 개발하는 일



제 6차 김치 신학세미나

현장스케치

한국교회의 성장과 성경적인 교회성장 원리를 배워서 자국복음화에 기여하기 위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교계 지도자 31명이 왔다.

강의와 토의, 견학 등을 통해 이들은 영적인 필요들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받는다고 입을 모았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한 목회자는 "우리나라의 모든 목회자들이 경제적 원조를 기대하며 사람을 좇던 시각에서 벗어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기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의 우딘 목사는 <한국교회사>를 들으며 큰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며 "처음에 미약하지만 하던 한국교회의 급성장을 보면서 우리나라(파키스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한국 못지않게 부흥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의 참가자는 "역사적인 성지 순례를 위해 예루살렘을 찾듯, 생동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보기 위해서는 한국을 찾으라고 권하고 싶다"며 한국에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에도 이같은 복을 주실 것을 기도한다고 하였다. 또한 받은



바 영적인 유산을 공유하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서울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 아울러 자신들도 이제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특히 새벽기도회가 인상깊다며 본국에 돌아가면 이 일을 시행할 것을 대부분 참가자들이 결단하였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가장 절실한 것은 영적 지도자들이다. 파키스탄의 경우, 어려움을 무릅쓰고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도 거듭남의 체험이나 교회공동체로서의 의식은 거의없는 형편이다. 방글라데시에는 3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고 교회와 교인의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전담 목회자의 수는 10여년간 300명 선에 정체되어 있어 목회자 한 명이 여러 교회를 돌보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체 내의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외부로부터의 원조로 지탱하고 있으며, 헌신된 선교사역자들은 보상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에 종사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이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 뒷 페이지에 계속)



(→앞 페이지에서 계속)

마호메드를 모욕하면 사형에 처하는 샤리아법이 일상적인 삶에까지 감정대립을 일으키게 하는 파키스탄. 자신들을 지배하던 나라의 종교인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정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암울하기만 한 방글라데시. 그들로부터 직접 듣는 이들 나라 국민의 마음받은 복음이 뿌러지기에는 너무 척박하기만 한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이곳에 온 교계 지도자들은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서처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이들은 "그렇

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대답한 자들이다. 복음전도자들의 사역과 그들의 미래는 전혀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용감하게 정진하는 것은 복음이 모든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고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이끌가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사랑과 함께 열리는 모임과 나눔의 장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수요 I부 예배 후 대학부실에서 수집

여전도회 연합회에서는 각 가정의 재활용 가능한 의류들을 모아 나누는 『모임과 나눔의 장』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작아지거나 실증이 난 옷, 혹은 더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옷들을 모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자원 활용과 성도간에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이 일은 성도들끼리 나눌 뿐 아니라 제 6차 김치신학세미나에 참석 중인 목회자들을 통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도 보내고, 19일에 있을 놓어촌 목회자 초청 세미나를 즈음해서 놓어촌 자매교회에도 사랑과 함께 보내려고 한다.

각종 의류는 깨끗하게 손질하여 오는 7일 (수) I부 예배 후까지 교회 4층(대학부실)에 가져오면 된다.

한 지체임을 확인할 성찬식 거행 수요 II부 예배 시

제 6차 김치 신학 세미나의 폐회예배를 드리는 오는 7일(수) II부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한다.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지체임을 확인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더 힘써 중인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게 될 이번 성찬식에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는 누구나 기도하며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다.

면서 서로의 사역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종강예배를 마친 후에는 한 남기독실업인회가 준비한 만찬순서도 마련되어 있다.

중등부 창조론 특강 창조냐? 진화냐? 다음 주일 오전 9시 30분

중등부에서는 다음 주일(11일)에 창조론에 관한 특강을 한다. 중등부 집회 시간인 오전 9시 30분에 중등부 예배실에서 열린 이 날 특강의 강사는 조덕영 선생(창조과학회 간사)이다. 관심있는 성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내일 종강

제 7학기 목회자 세미나가 내일 종강한다. "목회와 영성"이라는 주제로 지난 3월 27일에 시작하여 월요일마다 실시하던 목회자 신학 세미나는 내일 제 1교시 이종윤 목사의 로마서 강해와 제 2교시 오성춘 교수의 "기술사회와 영성"이라는 특강을 마지막으로 종강하게 된다. 내일은 특별히 현재 김치 신학세미나에 참석 중인 목회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흥해작전을 통해 개인이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도록
2. 국내의 목회자들의 영적인 갱신을 위하여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